



제58회 과총포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개최

# R&D성과 높이기 위한 IP경영전략 필요하다

글\_김순강 과총 객원기자 pureriver@hanmail.net

**최** 근 특허분쟁으로 인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처럼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것이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공동주최한 제58회 과총포럼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창조경제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

이날 포럼에서 고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창조경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경제란 사람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 핵심은 특허를 중심으로 한



▶ 패널토론

지식재산"이라며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연구기관이고 지식재산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연구기관의 지속성과 연속성, 나아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영희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연구기관이 그동안 연구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성과물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구기관의 지식자산을 더욱 활발히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틀이 되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부가가치의 특허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기업은 창조적 혁신과 가치 창출로 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연구기관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은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부섭 과총 회장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 이우중 부회장은 "지금은 지식재산이 과거의 물적 재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전제하면서 "지식자산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전략을 잘 짜야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의 주제가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가 61조 7천억 원을 상회해 총액 규모로는 세계 5위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로는 세계 1위에 해당하지만, 2012년에 기술무역수지가 고작 57억 원에 달한 것을 볼 때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R&D과제와 지식재산의 긴밀한 연계, 성과 확산, 전담조직의 강화, 출연연의 IP경영 고도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IP-R&D, 특허분석과 전략도출 수행

본격적인 발제순서로 이어져 허태호 한국지식재산



▶ 이우중 과총 부회장(좌)과 고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략원 특허전문위원이 ‘연구기관의 전략적 IP경영’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허태호 위원은 “IP-R&D의 목적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과 기관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전에는 먼저 연구를 한 후에 연구결과물로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제는 IP분석을 먼저하고 그것을 통해 연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선(先) R&D 후(後) 특허출원’의 경우는 도면 설계 없이 각자가 구성품 건축을 하는 것과 같고, ‘先 특허출원 後 R&D’는 도면을 먼저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것처럼 R&D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먼저 염두에 두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허 위원은 “IP-R&D 과정 1단계로 기술과 환경연구, 그리고 기업의 니즈와 현황 파악 등 환경을 분석한 후, 2단계로 기존에 나와 있는 관련 특허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고 필터링을 하게 되며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3단계에서는 IP-R&D 전략을 도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연구가 특허침해의 오류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며 허 위

원은 “침해의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 역시 IP-R&D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IP-R&D 전략지원사업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원과 협력기관의 전문인력이 한팀이 되어 특허분석과 전략도출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분석 및 전략 수립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기업기관의 자산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IP중심의 라이선싱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임병웅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은 ‘연구기관의 IP현황 및 과제’를 ‘IP중심의 라이선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 임 위원은 먼저 정부의 정책 방향이 ▲R&D의 사전기획 강화 ▲성과확산조직 전문성 강화 ▲평가제도 및 시스템 개선 ▲개방형 성과촉진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2012년 말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보유기술 건수는 19만280건으로 2011년 11만6천439건과 대비해 63.4%가 증가했는데 기술유형별로는 특허가 140,9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술보유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 시사점으로 “양적인 기술 이전율은 미국 대비 73.44%로 그리 나쁘지 않지만, 질적지표인 건당기술료가 미국 대비 10.08%로 매우 저조하고 연간생산성 역시 미국 대비 37.91%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기술 중심의 라이선싱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라이선싱이 아니라 IP중심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즉 연구과제와 지식재산, 그리고 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이 보유한 해외 IP 중 시장이 형성되어 활용 가능한 우수 IP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해 모니터링 실시와 특허 라이선싱을 지원하는 등 해외 IP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IP R&D작업 보완과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 개진

발제에 이어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서영호 OCI(주) 중앙연구소 IP팀장과 김훈배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실장, 김우현 ERT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 부장이 참여했다.

먼저 서영호 팀장은 “저희 회사에서도 IP-R&D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허분석을 통해서 침해가능성이나 사업화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IP-R&D 작업 이후 연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훈배 실장은 “우리나라에 IP중심의 라이선싱이 부족한 까닭은 우리나라의 등록된 특허 무효율이 70%를 육박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에서 굳이 IP를 라이선싱하지 않고 그냥 갖다 써도 나중에 무효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우현 부장은 ETRI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재는 IP에 대한 양적인 평가가 문제로 지적



▶ 허태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전문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임병웅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기준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투입한 연구자금을 대비해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치화할 수 있는 우수 IP가 나와야 하며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